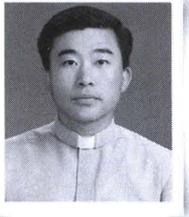


강론 ...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장상원 신부
(교구 사회사목국장)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부활 팔일 축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오늘, 우리는 두 독서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말씀은 사도들의 부활에 대한 증언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생활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태어났고, 그 증표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합니다.

복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평화와 성령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토마스의 불신앙을 통하여 부활하신 당신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야 할 예수님의 과업을 보게 됩니다. 정녕 보고 만져야만 직성이 풀렸던 토마스를 통하여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는 부활시기를 보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뵈는 사도들은 더 이상 앓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셨음을 알려야 한다는 사실과 그

런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도들의 후예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우선 서로 가진 것을 내어 놓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겠다는 마음과 실천, 다음은 진정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목숨바쳐 사랑하겠다는 정신과 행동,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한 가운데서도 진솔하게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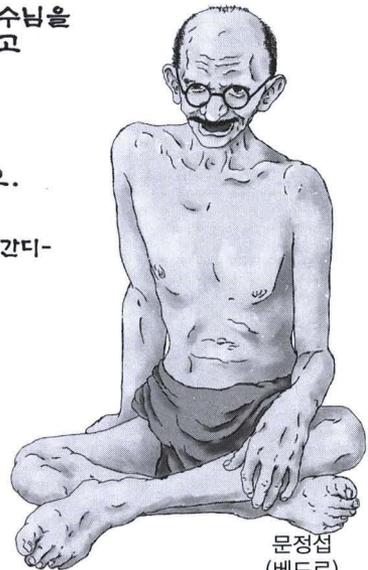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뵈었소!”

숲머리 생각

내게
당신의 예수님을
말하지 말고

그 분이
가르치신
사랑을
보여주소.

- 마하트마 간디-



문정섭
(베드로)

멸망의 죄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분당 주임

“므나세는 이스라엘을 그릇 인도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이 아훼께서 자기들 면전에서 멸하신 민족들보다 한층 더 심하였다.”
(열왕하 21,9)

하느님 백성은 믿음을 잃을지언정 극단적인 죄에 빠지는 것은 앓을 것 같다.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진다. 믿는 이들의 타락은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비겁함일지언정 적극적인 악행은 아닐 것 같다. 이방인들처럼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믿음이 멸망을 방지할 마지막 보루가 되어 준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신앙을 잃은 자리에 그보다 더한 저주의 그늘도 있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망한 뒤 남 왕국 유다에 찾아온 저주스런 세월이 그것을 말해준다. 홀로 살아남은 유다였건만 므나세가 통치하는 오십 오 년 동안 왕국은 철저히 멸망의 길을 걸었다. 부왕 히즈키야의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들 므나세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다. 하느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물론 철저히 하느님과 그분이 계신 성전을 모독하였다. 이방의 제단이 세워지고 점쟁이와 무당이 활개를 쳤다. 심지어는 왕자들까지도 제물로 불살라 바치는 악행을 저질렀다. 천인공노할 죄악이었다.

므나세의 죄는 앞선 왕 히즈키야의 신실함을 무색케 하였

고 후에 올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목숨을 십 오년이나 연장받은 히즈키야의 오롯함도 죄로 기운 므나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믿음이 파괴되고 하느님의 적대자가 되어버린 므나세의 오만은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병들게 만들었다. 금이 간 독은 깨어지기 마련이다. 그것을 막을 재간이란 없다. 계약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이상 하느님의 용서도 없을 것이다. 남은 것은 멸망 뿐이다.

쌓기는 힘들어도 허물기는 쉽다. 믿기는 어렵지만 타락하기는 쉽다. 때로 고치고 쌓아 보리라 생각하지만 깨어지는 날이면 절망이다. 높은 곳의 추락은 상처가 아니라 죽음이다. 므나세 왕의 오십년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유다는 결국 이방의 죄를 능가하여 멸망을 부르게 된다. 하느님 백성은 결코 그런 불행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추락하는 것에도 날개가 있다 하지만 이미 부러진 것은 소용이 없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될 때 지켜야 한다.



입당송 1베드 2,2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그러면 그것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4,32-35

화답송 시편 118(117), 2-4,16-18,22-24 (◎ 1)

◎ 주님을 찬송하여라, 종으신 분이시로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도다.

제2독서 1요한 5,1-6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토마사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요한 20,27 참조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지방자치선거, 우리가 지켜야

‘지방자치’ 판을 짜는 선거가 한달 남짓하게 남았다. 의원들이 받을 ‘보수’가 쏠쏠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당 공천제도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달라서 그런지, 돌아다니는 명함이 제법 많다. 그런데 공천문제가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닌가보다. 공천에 따른 부정한 뒷거래가 이제는 굶을 대로 굶었다. 그래서 어떤 신문은 아예 ‘공천 종양’이라고까지 적고 있다. 말을 바꾸어보면 ‘공천 암’이란 뜻이다. 이럴수록 유권자인 우리들의 몫이 중요하다.

지난달에 우리 교구 평협은 임원연수회를 갖고 파견미사에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 중의 한 대목에 이런 말이 있다. “지자체 선거에 가정이 건전한 후보를 우선 선택하도록 선도할 것”. 이 내용은 ‘봉사자의 자각’을 말하는 성경말씀과도 부합한다. 선거는 ‘참된 봉사자’를 뽑는 일이 제일로 중요한 일일 터이니, 성경 말씀(1티모 3,8-12)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다. 봉사자는 “품위가 있어야 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으며, 술에 빠져서도 안 되고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할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선택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예를 하나 들자면, 선생님 한 분 모시는(뽑는) 일도 그러하다.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터인데, 그걸 알아내는 일이 어렵다는 말이다. 교육은 아무래도 사랑을 길러내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직이 성직이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을 뽑는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가 어렵다. 특히 밖으로 드러내 놓아야 할 (족쇄 같은) 기준이 그러하다. 하지만 선거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를 터이니 신앙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사도행전은 유다의 자리에 마티아를 사도로 뽑아 채울 적에 기도하였다고(1,15-26) 전한다.

그런데 입후보자가 이런 공약을 내걸거나 찬성하는 사람을 뽑아주었으면 좋겠다. 치적만 쌓을 요량으로 ‘빛살림을 한 사람에게 (변상)책임은 묻는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 그리고 허튼 짓을 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도 좋다는 ‘주민소환제’에 찬성하는 사람 말이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다. 선거가 끝나면 서로 등돌리지 않고 웃으며 만나기로 작정하고 선거판에 뛰어든 일이다. 한상갑(바오로)·그림 : 황의성(세례자 요한)

문화의 향기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 / 저자 베에르 테이아르 드 샤르댕 / 역자 이병호 / 문도출판사



첨단의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거기에 걸맞는 이해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 신앙인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신앙인으로서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총체적인 시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마련하신 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테이아르 드 샤르댕 신부이다. 테이아르 드 샤르댕은 고생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자연과학자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는 사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삶

을 바친 신앙인이었다.

〈자연 안에서 인간의 위치〉는 우리시대가 접하는 자연과학적 바탕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하고 복된 일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과학의 시대에 신앙인의 삶에 대해 의문과 회의를 느낀다면 이 책을 보라.

많은 묵상의 체험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놀라운 과학의 변화만큼이나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 중앙 성당 부활 성야 미사 봉헌



중앙 성당(주임=김동준 신부)은 지난 4월 15일(토) 밤 9시 이병호주교의 집전으로 부활 성야 미사를 봉헌했다. 이병호 주교는 이날 강론을 통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서전체를 풀이해서 설명하셨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서전체가 희망했고 예언하였던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성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일함으로써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주셨다”는 성서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하자고 말씀하셨다.

|홍보국 정리|

● 나운동 성당 부활 대축일 미사 봉헌

지난 4월 16일(주일) 부활 대축일을 맞아 교구장 이병호 주교는 나운동 성당(주임=안철문 신부)을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하고 부활의 기쁨을 신자들과 함께 나누었다. 이곳에서 사순절에 한주간 특강을 실시했던 이 주교는 “사순절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묵상하였기에 부활의 의미가 더 클 것이다”라며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자”고 신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 주교는 이날 미사의 전례부분을 담당할 본당의 성가대, 독서자, 해설자 등 모든 봉사자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며 흐뭇함을 표시하고 신자들에게 박수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군산지구 신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부활의 힘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발휘될 때 군산이 뒤집

● 삼례 성당 부활달걀 병원환자 전달



삼례 성당(주임=이재후 신부)은 지난 4월 16일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달걀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매년 열리

는 이날 행사에는 성삼일 기간 동안 반별로 정성껏 꾸민 달걀을 봉헌하며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이재후신부는 “달걀 하나 하나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교우들의 모습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1등에는 3구역 2반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삼례 성당 사목회(회장=강영만)에서는 교우들의 정성이 담긴 부활 달걀을 삼례읍에 소재한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2003년부터 매년 부활 달걀과 음료수 그리고 천주교를 알리는 소책자를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전달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부활을 알리며 선교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경호기자|

28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주최 :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대학생 : 6/25~8/13(7주) 592만원
초·중생 : 7/25~8/15(3주) 399만원
문의 : (주)그린피스 E&T 02-569-1331

르노삼성자동차

New SM5-SM3-SM7
중고차 처리부터 자동차 관리
폐차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 222-2282, 011-9439-0112
홍과장(베드로)

중고과 인도 펀드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친디아변액보험

변효석(루도비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은
SAVE 연금보험 판매개시!!
문의 : 010-6797-8291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필리핀, 중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고급 생선(도매, 소매)

100번 수산

이복동(마테오) 이미숙(리디아)
삼천동 농협공판장(내)
227-7877 / 011-652-8045

서 이비인후과

위치 : 호성동 유원아파트 후문 앞
원장 : 서수영(요셉) 백지은(요세피나)
☎ 242-5050

세무사 최준철 사무소

세무사 최준철(베네딕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113-12 2층
(송천우체국 옆)
☎(063)255-6200
FAX.(063)255-6202
HP 011-9453-3547
e-mail : eratojun@hanmail.net

치질·대장 수면 내시경 전문

전주 항원외과

평화동 사거리-중간-한국통신 사거리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가) · 이관재
☎ 228-6002~3



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예수님의 가르침 대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김영수, 신현숙 기자

● 전동 성당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전동 성당(주임=김준호 신부)은 이병호 주교 주례로 지난 4월 13일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했다.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발을 씻어주면 하느님이 함께 계시길 거라며 가정에서부터 서로 사랑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기도드린 후 하라고 말했다. 전동성당 사목회 상임위원, 사무장 등 열두 형제들의 발씻김 예식을 마친 후 교육관에서 사목회, 제 단체장과 봉사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부활하실 주님의 축복을 기원했다.

홍보국 정리

● 솔내 성당 성 금요일 주님수난예식



솔내 성당(주임=박종근 신부)은 이병호 주교님을 모시고 지난 4월 14일 성 금요일 주님수난예식을 거행했다.

이날 주님수난예식은 1부 말씀의 전례 2부 십자가 경배 3부 영성체의 차례로 진행됐다.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그 일을 완성하신 날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당하셨던 그 수난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기자

● 호성동 성당 '부활 골든벨 잔치'

호성동 성당(주임=현유복 신부)은 지난 4월 16일 부활절 교동미사 후 부활 골든벨 잔치를 가졌다.

청년성가대의 밴드에 맞추어 즐겁게 시작된 이 잔치는 각 신심단체 및 가족 단위, 친구사이, 스승과 제자 등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영예의 대상으로는 소년 브레시디움 '은총의 샘' 팀이 차지했다. 단장 이정수 마르타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어린이들을 바른 길로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길은 브레시디움에 어린이들을 보내는 것이며, 보내만 주신다면 책임지



고 인도하겠다고 힘있게 말했다. 이 팀은 두 달 전부터 성서완독을 목표로 하여 현재 모세오경까지 읽었다 한다.

이 잔치를 통해 전신자들은 교리, 전례 상식은 물론 성서와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최경호 기자

스스로 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아가씨)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아외주차장 앞

성모영보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4월 30일(주일)
장소 : 과천 본원
문의 : 011-9920-9423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

일시 : 5월 20일(토) 오후 2시~21일(주일)
장소 :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앙당 대상 :
■ 가정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분
■ 가정불화로 고통받는 부부, 부모자식, 교부간
■ 내적, 외적, 영적치유를 원하시는 분
회비 : 일만원(어린이 동반금지)
문의 : 011-490-5345

선교훈련 시그마코스

학술발표회

대상 :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일시 : 5월 6일 오후 3시~6시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문의 : 미래사목연구소 031-997-0935

쾌적한 입원실, 물리치료실

〈약산〉 한빛정형외과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러리아)
- 밤10시까지 야간진료 -
☎ 837-2222~4
(영등동 알리앙스 웨딩홀)

마리아 남자수도회

(마리아니스트) 성소모임

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자
담당 : 김일영(프란치스코) 신부
문의 : 080-749-8547

살레시오회 전주 성소모임

일정 : 4월 30일(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 전주 노송동 인보성체 수녀원
대상 : 중학교 이상
30세 미만의 건강한 미혼 남성
문의 : 062-512-0332, 011-9123-4010
살레시오 성소모임 : salmoir.cyworld.com

성지 순례

116차 동유럽 성지순례
(체코,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일시 : 4월 26일~5월 3일(7박 8일)
매일 미사드립니다.
문의 : 063-288-6666
전일관광 조선(안토니오)



교구장 일정

- 성 바오로복지병원 개원 기념 미사
4월 24일(월) 낮 12시
- 신학교 이사주교회의(CCK)
4월 25일(화) 오전 9시 30분
- 정진석 추기경님 서임축하미사
4월 25일(화) 오후 3시 명동
- 사목방문
4월 26일(수) 도통동, 쌍교동
- 사목방문
4월 27일(목) 신태인, 원평
- 사목방문
4월 28일(금) 연지동, 줄포선교
- 어양동 성당 축성식
4월 29일(토) 오전 10시
- 견진
4월 30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용머리

- 가톨릭학생회 지도교수 연수
4월 30일(주일) 오후 3시 센터
-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 2차
5월 2일(원가족과 부부), 9일(관계개념과 부부), 16일(부부 역동 이해) 오전 10시
주제 : 부부의 심리내적 역동 이해
참가비 : 1인당 3만원 / 장소 : 센터
대상 : 일반신자, 가정, 여성분과
신청 마감 : 4월 28일
문의 : 285-0041, FAX 285-0049

- 제2기 신앙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 실시안내
일시 : 5월 12일~6월 2일 센터 3층
접수 및 문의 : 4월 30일까지 사목국
본인 직접 방문 지원서 작성 제출
<http://www.jjsamok.com>
<http://www.jcatholic.or.kr> 참조

알림

-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4월 29일(토) 오후 4시
장소 : 전주 바오로딸 서원
문의 : 010-7141-5549 이병우 신부
<http://www.ofm.or.kr>

새 가톨릭센터 신축헌금 내역(4/9~15)	
전주교구 수녀연합회	1,140,000
이명렬	2,820,000

미사 · 행사 · 모임

- 천주교 전주교구 장애인복지협의회
(하나회)한마음 체육대회
4월 23일(주일) 해성 중 · 고 체육관
- 전주지역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4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센터
- 성바오로복지병원개원 기념 미사와 강의
4월 24일(월) 오후 2시 성바오로 복지병원 성당
문의 : 245-5118~9
차량운행 : 중앙성당 12시, 1시 20분 출발
- 가정 방문실 월례미사
4월, 5월 미사 없습니다.
- 군산지역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4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자원봉사자 후원자 월례미사
4월 27일(목) 오전 11시 / 문의 : 466-7981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
- 성가대의 날 행사
4월 29일(토) 오후 1시 해성고 강당
대상 : 각 분당 성가대원
준비물 : 미사도구, 성가책
문의 : 이경재 011-650-3477
- 혼인강좌
4월 30일(주일) 오전 9시 30분 센터

수도회 성소모임 안내

수도회명	모임일시	모임장소	문의
사랑의 씨앗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3시	용머리 성당 수녀원	063-281-0441
성바오로딸수도회	첫째 (월) 오후 7시	전주 바오로딸 서원	063-252-3398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성당 수녀원	063-244-0094
곤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노송동 인보성체수녀원	02-793-2070
마리아의 딸 수도회	첫째 주일 오후 2시	북흥공소	063-653-8004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첫째 주일 오후 1시 30분	창인동 성당	063-858-4724
경로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해월리 경로수녀원	063-243-1440
예수수도회(익산)	둘째 주일 오후 2시	익산 성모병원	010-7250-7049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군산 나운동 성당 수녀원	063-467-9200
작은 예수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동산동 전주장애인공동체	063-212-1589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셋째 (토) 오후 6시	가정방문실	016-634-5637
예수 성심 전교 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화산동 성당 수녀원	063-225-3675
전교 가르멜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	063-274-9262
노들담 교육 수도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호성동 동신A1동 1303호	063-246-8376
예수 성심 시녀회 성소	셋째 주일 오후 2시	이충성당수녀원	063-244-6762
미리내 천주성심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031-674-1251
인보성체수도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충노송동 본원	063-284-3231
선한목자 예수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2시	서울 길음동 본원	02-919-2754
까리따스 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덕진 수녀원	063-272-5304
서울성가 소비녀회	셋째 주일 오후 3시	효자동 수녀원	063-223-3822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셋째 주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3층 성소국	011-9852-9817
관상 · 착한목자수녀회	둘째 주일 오후 2시	성가정의 집	011-9653-8805
성가정 카푸친수녀회	넷째 주일 오후 4시	동산동 아이고의 집	063-214-4041

좋은 영화-비밀의 정원



일시 : 4월 26일(수) 오후 2시 센터 3층
상영시간 : 106분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는 모습, 대자연과 친구가 되어 그 곳에 동화되는 모습, 마음이 닫혀 있거나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되찾게 해준다. 이 영화를 통해 그려진 우정과사랑은 마치도 죽음에서 부활의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풍요로움을 느끼게 한다.

김·정·고·부 지구 본당 소식

고 창

주임신부: 563-2552 사무실: 564-2044 주임신부: 김 의 철
 유지원: 564-3529 수녀원: 564-6585 서목회장: 이 만 우
 F A X: 563-1782

- 오늘은 선교사 돌기 2차 헌금 있습니다.
- 가톨릭 센터 신축헌금: 900만원 이상, 정길진 각 100만원, 성모회 김양주 청계은 각 50만원, 양명우 30만원, 정재화, 김혜덕 각 20만원, 이성남, 김태원, 안근주, 이판수, 강현숙, 이이순, 각 10만원, 최금자(추가) 5만원, 홍성인애 - 3,756만원, 송남인애 - 2,521만원
- 사순 저금통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예비신자 이도에 적극 동참합니다. * 현역시 5월 30일 * 예비신자 카드를 제대와 봉헌함에 넣어주세요
- 홍도관광: 5월 9일(화) 전 8시 출발 - 신청 30일(일)까지 65세이상
- 금주모임: 꾸리아 - 공식미사후
- 다음주전례: 전례 - 은혜대, 김영숙, 독서 - 정명용, 김운형, 복사 - 김점동, 한재근
- 감사헌금: 김영숙 20만원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615,000원 * 교무금: 3,983,000원

만 경

주임신부: 548-9995 사무실: 548-9911 주임신부: 정 성 수
 F A X: 548-9911 서목회장: 최 봉 순

- “희망의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믿음에서 얻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채워 주시어,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로마15,13)
 금주: ① 병자영성체 - 26일(수)오후
 ② 가정성화미사(성제강복) - 27일(목)후7시30분
 ③ 금요순회미사 - 신희구역, 김경자(대례사)자매님택 - 후2시
- 차주: 꾸리아 - 교중미사후, 제대회
- 특별헌금: 김용자, 조진수, 각 - 10만, 고성녀, 한유순, 김지순, 각 - 5만 * 감사합니다
- 금주: 최순녀, 최진순, 김순례
- 차주: 이복철, 양해진, 이정숙

부 안

주임신부: 584-1331 사무실: 584-1333 주임신부: 문 규 연
 유지원: 584-1004 수녀원: 584-1332 서목회장: 조 건 규
 F A X: 581-1334

- 감사: 부활대축일 행사에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께,...
- 예비자입교식: 30일(주일) 교중미사후
- 새만금 생명평화기원제: 오늘오후 1시 새만금 방조제앞
- 사랑하올모친,예언자의모후 꾸리아: 30일(주일)교중미사후
- 신축헌금 신립누계: 201,288,000원 입금누계: 83,793,270원
- 금주청소: 6구역
 * 지난주 봉헌금: 4,583,000원 * 교무금: 1,260,000원

수 류

주임신부: 544-5653 사무실: 544-5652 주임신부: 범 성 배
 F A X: 544-5652 서목회장: 손 영 일

- 오늘 모임: 꾸리아 - 공식미사후.
- 오늘 선교사 돌기 2차 헌금 있습니다.
- 제대꽃 봉헌: 익명 5,000원 * 감사합니다.
- 수녀님, 김용운형제 부활계란 봉헌 * 감사합니다.
- 5월 환자 봉성체: 5월1일(월) 오전 10시.
- 오늘: 해설 - 문재현, 독서 - 조상선, 이금자, 봉헌 - 강경복부부
- 다음주일: 해설 - 김 용, 독서 - 김귀석, 정중환, 봉헌 - 고영남부부.
 * 지난주 봉헌금: 493,300원 * 교무금: 610,000원

시기동

주임신부: 538-0092 사무실: 538-0091 주임신부: 경 규 봉
 유지원: 532-5777 수녀원: 538-0093 서목회장: 최 필 만
 F A X: 538-0094 홈페이지: http://www.sigdong.or.kr

- 금주에는 선교사 돌기 2차헌금 실시합니다.
- 가톨릭 센터 신축을 위해 정성을 다합니다.
- 사순절 돼지 저금통 봉헌합니다. * 사무실
- 금주모임: 아브라함회, 베드로회(4/23 주일 미사 후) 제대봉사회(4/26 수)
- 금주전례: 해설 - 전강철, 독서 - 이상만, 임금순
- 성당청소: 화(4/25) - 천주의 성모, 토(4/29) - 황금궁전
 * 지난주 봉헌금: 2,902,500원 * 2차헌금: 538,000원
 * 교무금: 1,256,000원 * 가톨릭센터신축기금: 지난주 650,000원

신 태 인

주임신부: 571-8202 사무실: 571-8201 주임신부: 김 봉 술
 F A X: 571-8208 수녀원: 571-8203 서목회장: 박 선 우

- 오늘은 부활 제 2주일이며 하느님 자비주일입니다.
 * “평화가 너희와 함께” - 평화 인사(성대하게)
- 공소 미사: 태인-26일(수), 후7시30분
- 교구장 사목방문: 27일(목) 전10시, 많은 참여바랍니다.
- 부활 제 3주일(30일) * “여기가 먹을 것이 좀 있느냐?”(루카24,41)
 * 전신자 김밥 또는 빵, 샌드위치 준비해 와서 미사 후 나눔
- 오늘은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가톨릭센터 신축 신립하지 않은 세대는 신립 및 납부바랍니다.
- 금주 전례: 해설-정귀자, 독서-김영배, 최정숙, 봉헌-유천희부부
 * 지난주 봉헌금: 1,894,000원 * 교무금: 1,150,000원

연 지 동

주임신부: 538-0532 사무실: 538-0531 주임신부: 박 정 신
 F A X: 538-0534 수녀원: 538-0533 서목회장: 김 인 권

- 오늘은 선교사 지원 2차 헌금 있습니다.
- 부활 행사에 후원해 주신 분들과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출도리 쌀과 쌀겨를 돼지 저금통을 사무실에 대주세요
- 이번주 성서: 갈라디아서 6장 2 금주모임: ① LM 꾸리아 - 오늘 교중미사 후 ② 올드레아 - 24일(월) 후7시 구수녀원 ③ 사목회 - 28일(금) 후7시
- 교구장님 사목방문: 28일(금) 전10시 미사 직전
- 경도관광(65세 이상): 5월 8일(월) “다산초당 백련사.”
 ① 신청: 사무실 ② 참가비: 오전엔 ③ 정도 관광 후원: 접수: 사무실
- 가톨릭 센터 신축헌금: 황사연150,000원, 이윤순 고광진 각100,000원 박종익50,000원, 장우석30,000원, 윤영복 나지숙 각20,000원
- 감사헌금: 정남례(모사리아)100,000원, 익명50,000원 * 감사합니다.
 * 부활축이: 1,244,610원 * 예수부활대축일: 1,837,800원
 * 교무금: 1,265,000원

신 풍

주임신부: 544-2272 사무실: 544-2271 주임신부: 이 동
 F A X: 544-2271 수녀원: 544-2273 서목회장: 김 태 술

- 오늘은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습니다.
- 사순절 돼지는 살찌워서 성소주일에 봉헌해주세요.
- 금주모임: 꾸리아, 한우리(수), 구역장회의(토)
- 분당미사 참례공소: 용지
- 교구장님 사목방문: 5월2일 후2시 말씀예전례 사목회원과 신자 여러분도 많이 참석바람
- 성지순례: 5월 14일 회비-일만오천원, 28일 주일까지 신청마감. 장소는 추후 결정
- 감사헌금: 최준기-일백만원, 유순-오만원.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1,500원 * 교무금: 875,000원

요 촌

주임신부: 544-0152 사무실: 544-0151 주임신부: 박 정 신
 유지원: 546-3788 수녀원: 544-0153 서목회장: 구 서 목
 본당 홈페이지 주소: http://www.yachon.org

- 우리본당은 ① 공부하는 신자 ② 감사하는 교우 ③ 기뻐하는 공동체
- 선교사지원 2차헌금: 오늘
- 첫 영성체자 신청: 초등부 3학년~6학년 (사무실)
 * 부모모임 - 29일(토)후 2시
- 유아세례: 30일(일)주민등록등본지참-사무실신청
- 센터 신축헌금 신인: 박동현, 김순녀-각50만, 나경애-30만, 안나희-16만, 성모회-40만, 성물방-300만, 계 7,752만원
- 감사: 박옥진-10만, 부활절 행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분
- 금주모임 ① 공식미사후-교중미사후 ② 제대회-28일(금)
 * 지난주 봉헌금: 2,768,100원 * 교무금: 3,291,000원
 * 성지복구: 617,050원

원 평

주임신부: 543-0880 사무실: 543-0881 주임신부: 정 영 현
 유지원: 543-4236 수녀원: 545-2843 서목회장: 최 석 기

- 알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위해 기도과 활동봉사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알렐루야!
- 오늘 페루 선교 지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었습니다.
- 다음주 공식미사후 구역장월례회 및 판공철교지 사신식이 있습니다
- 2006년 첫영성체 모집(사무실로 신청바랍니다.)
 대상-초3~중2까지, 회비-2만원(교재, 초값, 사지값, 꽃사지)
- 승합차 구입 헌금: 김경준-3만원, 정인숙-3만원, 유정-10만원, 이성남-5만원, 홍상근-10만원, 김경자-3만원, 함께: 416만원
- 승합차 운행 봉사자: 금주-서만식, 다미야노, 차주-박형관 프란치스코
- 부활꽃대금을 봉헌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988,000원 * 교무금: 140,000원

줄 포

주임신부: 581-0242 사무실: 581-0241 주임신부: 송 영 진
 F A X: 581-0241 서목회장: 박 영 우

- 환영 주교님 사목방문: 28일(금) 오후 2시 (*오후 1:30 까지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 이날 미사는 오전 6시로 변경합니다.)
- 금주모임: 요셉회 - 오늘 공식미사후, 교리교사회 - 28일(금) 오후 8시
- 만석공소 미사: 오늘 오후 3시, 30일(일) 오후 3시
- 수녀원 미사: 26일(수) 오전 6시

- 영화상영: 26일(수) 오후 7:30, 제목 - 마더테레사
- 감사헌금: 허연환(마리아) 3만
- 미사인내: 금주 - 오옥례, 이숙덕, 차주 - 이종미, 김영남
- 금주전례: 해설 - 고재원, 독서 - 김기환, 이선녀, 봉헌 - 신문근 부부
- 차주전례: 해설 - 김영남, 독서 - 조팔남, 이종미, 봉헌 - 고광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72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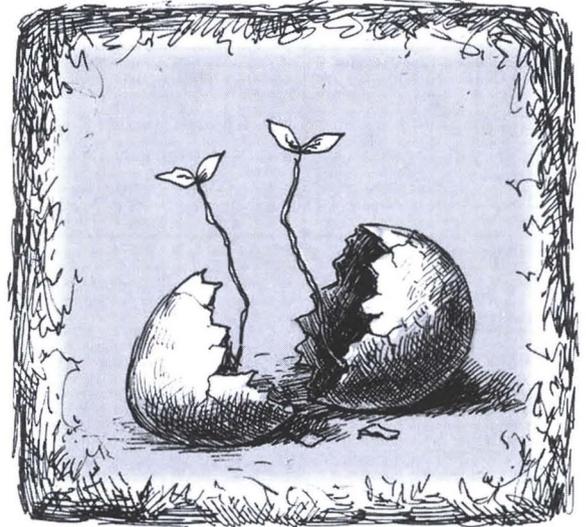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시기동성당

부활의 노래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들도
향유로 환하게 꽃등을 켜고
설렘으로 부활축제를 여는 사월

왼손에 불신의 못을 박고
오른손에 이기심의 못을 박고
양발에 절망의 못을 박고
옆구리에 탐욕의 창을 꽂고
머리에 교만의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매달아
조롱하며 배신했던 우리
눈물 가득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죽음의 골짜기 지나
생명으로 오시는 길
깜깜한 우리 삶의 무덤을 열고
빛으로 부활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의 노래가 축복의 찬가가 되어



벽찬 가슴 알렐루야 알렐루야
영광과 환희의 꽃망을 터뜨리며
종달새마냥 부활의 노래를 부릅니다

양선재(아녜스), 그림 : 한병기(프란치스코)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실시해오던 '페루선교사지원 2차 현금'을 '선교사 돕기 2차현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전주교구는 페루 차차뿐야스 교구에서 실질적인 선교사 일을 하는 사제가 없으므로 그 명칭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페루 리마에서 교포사목을 하고 있는 사제 역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므로 선교사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리마의 선교센터는 전주교구 선교사 뿐 아니라 페루와 남미에서 활동하는 모든 한국 선교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국내의 교구 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이 필요한 곳을 지원해야하므로 그동안 실시해오던 '페루 선교사 지원 2차 현금'의 목적을 확대하여 '선교사 돕기 현금'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습니다.

현금의 횟수는 현재의 2회(부활 제2주일, 성모승천대축일에 가까운 주일)을 그대로 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